

이스라엘-하마스 4일간 휴전...인질·수감자 맞교환

어린이·여성 위주 석방...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도 허용 국제사회 '완전 휴전' 압박 커질 듯...네타냐후 "전쟁 계속"

이스라엘이 22일(현지시간)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50명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마스와 4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46일 만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휴전이 이뤄지는 것은 전쟁 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교전 중지 기간이 끝나면 전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번 협상 타결로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휴전 지속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이스라엘 각료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카타르가 중재한 인질 석방 및 임시 휴전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약 50명의 어린이와 여성 등을 휴전 4일간 하루에 10여명씩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으며,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은 향후 24시간 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고 가자지구에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스라엘 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수감자는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마스 역시 성명을 통해 4일간의 휴전 사실을 확인하며 '인도주의적 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휴전 기간 이스라엘이 군용 차량의 이동을 비롯해 가자지구 전역에서의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품과 연료 등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실은 트럭 수백 대의 가자지구 진입이 허용되고, 가자지구 남부에서 4일간 드론 비행이 중단된다고 전했다. 북부에 있는 드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씩 비행을 중지하게 됐다.

또 휴전 기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누구도 공격하거나 체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것이라며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간 이동의 자유도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휴전 시작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23일부터 교전이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협상 타결 이후 이행까지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포함해 24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며 "이스라엘 시간으로 최소 23일 오전은 돼야 인질 석방 등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풀려나는 인질 중 미국 국적자 여성 2명과 3세 어린이 1명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전날 밤 각료회의를 열고 이번 협상

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인질 전원 석방과 하마스 붕괴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휴전을 하는 것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회의가 이튿날인 이날 새벽까지 6시간가량 이어졌다.

일부 극우주의 정당 소속 각료는 휴전이 전투 중인 군인들을 오히려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며 중단 없는 전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보안 기관과 다수 야당도 이번 협상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협상안은 소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통과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각료회의 이후 성명에서 "이스라엘군과 보안군은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를 제거하는 동시에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국가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난민 캠프에서 한 어린이가 배급받은 식수를 옮기고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및 휴전을 놓고 협상 중이다. /연합뉴스



미 추수감사절 앞두고 공항 몰려든 인파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이틀 앞둔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객들이 보안 검색대 앞에 줄을 서고 있다. 미 교통안전청(TSA)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3천만명의 승객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우라늄 가격 15년만에 80달러 돌파

우크라이나 이후 수요 크게 늘어

우라늄 가격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파운드(약 453그램)당 80달러를 돌파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우라늄 선물은 지난 20일 기준 파운드당 80.25달러를 기록했다.

'헬로케이지'로 불리는 우라늄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줄여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파운드당 20달러 선에 머물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나 수입 화석연료보다 저탄소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을 많이 찾으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전력회사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원전 건설도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라늄 생산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대규모 광산업체 카메코는 캐나다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우라늄 생산 목표를 낮췄고, 최근 니제르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해 유럽 원자력 발전소로의 운송이 어려워졌다.

또 러시아 로스토프가 운영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동 중단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우라늄 가격이 치솟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적극 지지→자제하라"...美 입장선회, 휴전으로 이어져

네타냐후에 교전중단 끈질기게 종용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2일(현지시간)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나흘 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한 것에는 이스라엘이 교전 중단을 받아들여도 될까 싶어 불안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자세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초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전폭적인 지지 방침을 밝혔던 미국은 가자지구 민간인 인명피해 급증으로 국제사회의 논란이 커지자 미국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군사행동 자제·교전 중단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이날 합의로 전쟁이 본격적인 휴전 국면에 접어들지도 주목된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50명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4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약 50명의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이 휴전 기간 하루에 10여명씩 단계적으로 풀려나며, 추가로 인질 10명이 석방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여성·아동 수감자들을 풀어주고 가자지구에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일시 휴전 성서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이 지난 3일 이스라엘을 찾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인도적 차원의 일시적 교전중단'을 공식 제안한 이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교전 중단을 압박해온 것이 이번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바로 전날에도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번 무력 충돌로 너무나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피살됐다"면서 "우리는 더 장기간의 교전 중지를 원한다. 우리는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가자지구)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일시 휴전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북부 병원·학교 공습과 관련해 이들 시설이 보호받아야 하며 "공습을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AI무기 전쟁터 도입 임박했지만 규제 없다

NYT "자율살상 기술 국제사회 우려"

인간의 생사를 스스로 결정할 인공지능(AI) 무기의 전쟁터 출현이 임박했지만 이런 잠재적 위험을 차단할 국제사회의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AI 자율살상무기의 개발 추세, 주요국의 입장, 국제사회의 논의 등을 다룬 탐사보도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재 치러지고 있는 전쟁 때문에 AI 자율살상무기 문제가 더 시급하게 부각된다.

당장 AI의 자율살상 기능이 접목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주목받는 무기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서 사용이 급증한 무장 무인기(드론)다.

드론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조종하지만 현재 스스로 표적을 찾아 공격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소수 군사강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AI 자율살상 기술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들은 국제법이 정비되기 전에 AI 자율살상무기가 전쟁터에 확산할 가능성에 우려한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